

## 작가 림종상의 세부묘사특성

황영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세부묘사는 사실주의적묘사의 기본형태이다. 소설에서는 인물을 그리든 환경을 그리든 할것없이 세부묘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6권 316페이지)

소설은 여러가지 세부묘사들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다.

예술적세부묘사는 소설작품에서 형상을 이루고있는 세포로서 기초적인 단위로 된다.

예술적세부라고 할 때 주요생활세부를 넘두에 둔다.

작가 림종상은 소설창작에서 이채로운 세부묘사와 세태풍속묘사를 잘하여 소설작품들의 예술적품격을 높여왔다.

작가 림종상의 세부묘사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작품의 주제, 사상을 밝히는데서 이채로운 생활세부들을 찾아 능란하게 활용한것이다.

림종상이 창작한 작품들은 굵은 사건선이 없이도 세부와 세부가 련결되어 이야기가 이채롭게 이어지고있다.

장편소설 《그해 여름과 겨울》은 주인공 홍성표의 애인인 김정임이 해방전 어머니가 남겨놓은 구리가라치를 끼고 다니는 세부며 홍성표와 김정임이 결혼식날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뒤로 미루는 세부, 주요공정인물 오정민과 함께 물고기잡이 나갔던 형님이 적들의 포탄파편에 맞아 부상당하여 입원하는 세부, 신병훈련때 농민출신의 《아바이》병사인 강동출이 목달개를 바로 달지 못하고 아침대렬검열에 참가하는 세부 그리고 입대할 때 색다른 바지를 입고 나왔다가 눈총을 받는 고급중학교출신인 서창호에 대한 세부 등 별로 굵은 사건선이 없이 세부와 세부들의 련결에 의하여 이야기줄거리가 이어진다.

소설에서 이 예술적세부들은 한 사건으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이야기를 이어놓기도 하고 작중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며 환경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불우한 련사》에는 극적인 세부들도 적지 않다.

인력거군으로 돈벌이를 하던 일본장사치를 혼내준 리정학의 올곧은 행동에 반하여 그 집의 짐을 싣고 간 장인환이 주는 샅돈은 받지도 않고 그를 만나겠다고 청하여 만나는 장면의 생활세부, 리정학이 자기 안해가 시집을 때 가져온 수예작품인 《맹호도》를 리완용의 권고로 미국외교고문 스티븐슨에게 선물로 주는것 그리고 장인환을 배려우려 인천항부두까지 나왔다가 배가 이미 떠나간 뒤라는것을 알고 통곡하는 누이의 발에서 벗겨진 한짝의 짚신이 바다물에 둥둥 떠가는 세부 등이 그러하다.

특히 매국역적 리완용이 미국외교고문 스티븐슨과 밀담을 벌리며 술상에 마주앉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거적을 뒤집어쓰고 나타난 리정학이 옛 친구 리완용은 죽었다고 통곡하는 세부는 이채롭다고 할수 있다.

장편소설 《불우한 련사》, 《그해 여름과 겨울》 등이 독자들속에 널리 읽히우고 감명깊게 그 내용들이 안겨오는것은 바로 세부형상이 독특하기때문이다.

이러한 세부들은 작품의 이야기줄거리에 도간도간 반복되고 삽입되어 작중인물들의 상

상, 련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기도 하고 단 한번 인입되어 성격해명에 이바지하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근기있게 끌고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장편소설 《불우한 련사》에서 장인환이 누이의 짚신 한짝이 바다에 둥둥 떠가던것을 자주 련상하는것은 외세에 의하여 짓밟혀지고 찢겨여지는 현실의 참상이 목격될 때마다 그것이 떠올랐기때문이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짚신 한짝의 세부는 쓰라린 당대 현실의 형상적비유로 련상되며 그 의미가 증폭되어 보여지게 하고있다.

스티븐슨이 《맹호도》의 호랑이를 조선사람의 억센 기질로 느끼게 되는 과정도 죽는 순간까지 그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 간직되었기때문이다.

작품의 첫머리에는 진눈까비가 내리는 자연묘사가 있다.

이 묘사는 작품에 끝없이 반복되면서 일제강점으로 인한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여줌으로써 작품의 어두운 양상을 더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비내리는 정경에 대한 장면도 하나의 세부라고 할수 있다.

장편소설 《그해 여름과 겨울》에서는 수공예가가정출신의 인물 서창호가 첫 입대생활에서 남보다 뒤떨어지고 몇차례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부대의 진격로를 여는데 앞장서는 용감한 전사로 자라난다. 그런가 하면 목달개전사도 제대로 못하던 농민출신병사 강동출은 마지막전투에서 전우들이 적철조망을 뛰어넘을수 있게 한몫을 내대여 전투승리에 기여한다.

작품에 주어진 작중인물의 생활을 보여주는 이러한 세부형상은 작품전반에 관통되어 있는 의의있는 사회정치적문제를 밝혀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작가 림종상의 세부묘사특성은 다음으로 풍만하고 진실한 세태풍속묘사로 형상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보장하고 작품의 민족적특성을 살린것이다.

세태풍속묘사는 토색이 짙은 민족생활과 풍속, 습관과 정서, 기질 및 심리 등에서 나타나며 그것은 민족적특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된다.

문학작품에서 민족적특성을 옹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성격과 함께 민족생활의 진실한 묘사에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민족생활을 깊이 탐구하여야 생활과 풍속 및 습관, 정서, 기질, 심리 등에서 나타나는 민족적특성을 풍부히 밝혀낼수 있다.

생활묘사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는 목적은 결코 지난날의 민족생활이나 풍속을 그려내어 사람들의 단순한 흥미를 자극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민족생활을 그리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감정과 정서를 통하여 작품의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여주며 민족적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있다.

민족생활을 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오랜 력사발전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생활습관, 세태풍속, 우리 인민에게 익혀진 아름다운 자연풍경들을 진실하게 묘사하는것이다.

생활습관과 세태풍속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민족생활을 묘사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림종상의 력사소설작품들에서는 여러가지 민속놀이와 세태풍속, 민족음식과 기물에 대한 묘사가 주어지고있다.

실례로 장편소설 《불우한 련사》를 들수 있다.

소설에서 나이드은 홀아비인 춘택과 젊은 과부인 길너를 결혼시켜 그들을 고향의 부모처럼 모시고 의지하자는 장인환의 제의에 하와이농장 조선이민모두가 찬성한다. 그리하여 그

들은 신방을 꾸리고 장인환의 지시에 따라 과부를 강제로 업어오는 의식을 진행한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정서 그리고 생활론리에 맞게 생활적으로, 정서적으로 펼쳐지고있다.

작가의 력사소설들에는 설명절,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들과 계절마다 다른 여러가지 음식들, 민족고유의 혼례법과 장례법, 다양한 민속놀이들이 잘 그려져있으며 땅냄새, 흙냄새가 풍기는 근로하는 사람들과 당대 시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여러가지 주위환경묘사가 잘 그려져있다.

문학작품들에 민족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족고유의 생활습관, 도덕, 애정류리문제와 혼인제도를 비롯한 생활이 중요한 분야를 이루도록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의 력사소설들은 중요한 창작실천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장편력사소설 《삭풍》에서 주인공 성삼문을 접대하는 기생 조정심의 모습을 그린 장면들, 신숙주의 부인 윤씨가 남편을 공대하는 장면들에서는 조선민족고유의 음식들이 윤표하게 눈을 끈다.

실례로 윤씨가 술에 취한 신숙주에게 해장술을 권하는 장면을 들수 있다.

《해장국으로서는 남편이 늘 찾는 따끈하고도 연한 콩나물국이 상에 올랐다. 곁해서 얼음을 박아넣은 오이통김치, 쑥갓무침, 참기름에 무친 룡두나물 등 가벼운 음식들로 소반을 메웠다.》

장편력사소설 《19년의 보통문》에서는 주인공 옥동기가 부인의 3년제를 지내기 위하여 차린 음식상이 이 시기 조선고유의 향취가 풍기는 독특한 음식들로서 하나의 민족음식진렬장치럼 묘사되어있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더 많이 배우고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명작폭포로 문명강국건설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전진에 보폭을 맞추어나가야 할것이다.